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a Child's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 Aggression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영화
교수 김경연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Young Hwa Lee

Professor : Kyong Yeon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ory effects of children's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 agg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479 boys and girls selected from fifth-and sixth-grade classes in Busa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social skills and child aggression. Second, child aggression directly affected parents' attitudes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However, child aggression indirectly caused an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mediating the child's social skills.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공격성(aggression)

I. 서론

공격성은 타인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의도적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된다(Baron & Byrne, 1994). 공격성에는 때리고 위협하고 욕하고, 말다툼하는 외현적인 공격과 따돌림과 같이 상대를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관계적인 공격이 포함된다(Orpinas & Frankowski, 2001). 공격성은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개인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Oh & Kong, 2007)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종단적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또는 성인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린시기 동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ubin, Stewart, & Chen, 1995; Tremblay, 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가 애정적일수록 공격성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Kim & Doh, 2001), 애정의 반대측면인 강압적, 적대적,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행하게 느끼게 하여 공격적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한다(Kim & Kim, 2005; Olweus, 1980; Perry, Kusel, & Perry, 1988). 또한 부모가 자율적, 격려적일 때 아동은 덜 공격적이었고(Chang, 1998; Jang, 2007),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1999). Park(2002)은 부모가 자율의 반대측면인 통제적인 양육을 하면 아동은 공격적 표현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요구를 표현하고 타인의 사회적 개입에 반응하는(McFall, 1982)등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인 사회적 기술을 들 수 있다. Gresham와 Elliot(1990)는 사회적 기술의 지표로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통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술의 결핍은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LaGreca & Stone, 1993),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Jang, 2003; Jung, 2004; Park, 2002),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교사와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된다(Choi, 2000). Walker와 McConnell(1993)등의 연

구에서도 또래 보다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은 아동은 사회적 위축, 우울과 함께 특히 사회적 공격성이 제시되었다(quoted in Park, 2005).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isenberg(2006)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Cohn(1990)은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뛰어났다고 보고하고 있고 Kim(1996)은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대할수록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 호의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표현할 수 있으며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등 사회적 기술이 뛰어났다고 보고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인 양육을 하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ole, Teti, & Zahn-Waxler, 2003; MacDonald & Parke, 1984). 이상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한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외현적 공격성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Crick & Grotpeter, 1996; Crick & Werner, 1998; Park & Doh, 2002). 공격성을 구분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자는 외현적 공격성이, 여자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6).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의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Finnegan, 1995; March; Kim & Park, 2006; Rigby, 1993; Son & Kim, 2004)가 보고되고 있어 아동의 공격성 연구에서 공격성의 유형별 구분과 함께 아동의 성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공격성 유형 및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아동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공격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가?
 2-1.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가?
 2-2.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479명이다. 표본추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5~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작성의 주의점을 연구자가 전달하였고 조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선정된 표본의 수는 510명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479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성별구성에서 남아가 260명(54.3%)이고, 여아가 219명(45.7%) 이었고, 학년별 구성에서 5학년이 229명(47.8%)이고 6학년이 250명(52.2%)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Seo와 Kwon(2002)의 한국판 공격성 척도와 Lee(2001)의 간접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Seo와 Kwon(2002)의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9문항)과 언어적 공격성(5문항)으로 14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Lee(2001)의 척도는 관계적 공격성(7문항)으로 총21문항 구성하였다. 공격성을 Crick와 Grotpeter(1996)의 분류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함에 따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의 점수를 합하여 외현적 공격성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18개의 문항만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누가 나를 심하게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아이를 때릴 경우도 있다.” 등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친구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아이의 흉을 본다.” 등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까지 Likert척도이다. 점수범위는 외현적 공격성이 11점~55점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7점~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는 .91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Yang과 Oh(2005)가 제작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동심 6문항, 주도성 9문항, 공감능력 4문항으로 총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동심 문항은 또래를 도와주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모둠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한다.” 등과 주도성 문항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동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등과 공감 문항은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거나 또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경우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등이다. 각 문항의 반응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까지 Likert척도이다. 점수범위는 19점~9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im(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 시켰다. 각 차원은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대, 자율-통제와 관련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7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13개의 문항만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애정-적대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 내용으로는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통제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 내용으로는 “부모님은 자기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까지 Likert척도이다. 점수범위는 13점~65점이고 부정적 문항을 역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T-test: Variables related to Child's gender

| Variables | Groups(N) | M(SD) | t |
|-------------------------------|--------------|-------------|----------|
| Affective parenting | Boys(N=260) | 31.47(5.77) | -3.03** |
| | Girls(N=219) | 33.03(5.43) | |
| Autonomous parenting | Boys(N=260) | 17.50(3.61) | -2.30* |
| | Girls(N=219) | 18.22(3.18) | |
| Child's social skills | Boys(N=260) | 69.50(13.0) | -4.43*** |
| | Girls(N=219) | 74.45(11.1) | |
| Child's overt aggression | Boys(N=260) | 24.64(7.65) | 6.83*** |
| | Girls(N=219) | 20.09(6.79) | |
| Child's relational aggression | Boys(N=260) | 14.06(5.54) | 3.22** |
| | Girls(N=219) | 12.53(4.68) | |

p* < .05 *p* < .01 ****p* < .001

Table 1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t* = -3.03, *p* < .01),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t* = -2.30, *p* < .05), 아동의 사회적 기술(*t* = -4.43, *p* < .001)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t* = 6.83, *p* < .001),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t* = 3.22, *p* < .01)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사회적 기술이 더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아보다 남아가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Table 2와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2와 Table 3에 의하면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은 남아의 경우 *r* = -.11~-.29의 범위에 있고 여아의 경우 *r* = -.19~-.3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공격성에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좋을수록 공격성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공격성에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적

Table 2.
Pearson Correlation: Variables related to Boys' aggression (N = 260)

| | 1 | 2 | 3 | 4 | 5 |
|----------------------------------|--------|-------|--------|-------|---|
| 1. Affective parenting | 1 | | | | |
| 2. Autonomous parenting | .65** | 1 | | | |
| 3. Child's social skills | .51** | .47** | 1 | | |
| 4. Child's overt aggression | -.24** | -.11 | -.26** | 1 | |
| 5. Child's relational aggression | -.22** | -.12 | -.29** | .59** | 1 |

p* < .05 *p* < .01 ****p* < .0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Variables related to Girls' aggression (N = 219)

| | 1 | 2 | 3 | 4 | 5 |
|----------------------------------|--------|--------|--------|-------|---|
| 1. Affective parenting | 1 | | | | |
| 2. Autonomous parenting | .57** | 1 | | | |
| 3. Child's social skills | .39** | .37** | 1 | | |
| 4. Child's overt aggression | -.37** | -.25** | -.19** | 1 | |
| 5. Child's relational aggression | -.35** | -.28** | -.28** | .57** | 1 |

p* < .05 *p* < .01 ****p* < .001

기술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애정적으로 자율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좋을수록 공격성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 간 상관은 남아의 경우 *r* = .47~.65의 범위에 있고 여아의 경우 *r* = .37~.5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검토하였다.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관련 변인들을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인과효과 분석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한 매개모형을 Figure 1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Table 4와 Figure 1에 따르면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beta = -.23, p < .01$)와 남아의 사회적 기술($\beta = -.20, p < .01$)이었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01$).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 p < .01$). 남아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기술을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Child's Overt aggression (N = 479)

| Groups | Dependent variables | Independent variables | β | Causal effect | | | R ² |
|--------|--------------------------|-----------------------|---------|---------------|-----------------|--------------|----------------|
| | |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Boys | Child's social skills | Affective parenting | .37*** | .37 | - | .37 | .29*** |
| | | Autonomous parenting | .23** | .23 | - | .23 | |
| | Child's overt aggression | Affective parenting | -.23** | -.23 | -.07 | -.30 | |
| | | Autonomous parenting | .13 | - | -.05 | -.05 | |
| Girls | Child's social skills | Affective parenting | .27** | .27 | - | .27 | .18*** |
| | | Autonomous parenting | .21** | .21 | - | .21 | |
| | Child's overt aggression | Affective parenting | -.33*** | -.33 | - | -.33 | |
| | | Autonomous parenting | -.04 | - | - | - | |
| | | Child's social skills | -.05 | - | - | - | |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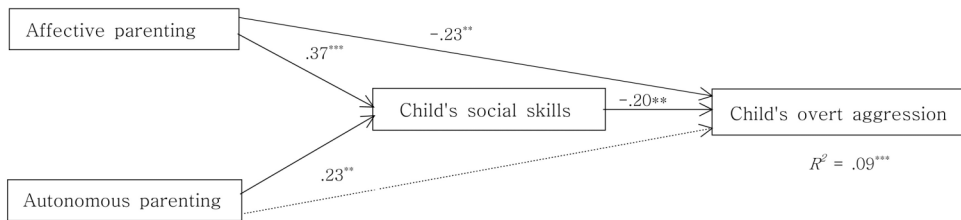


Figure 1. The Mediating model of a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Parenting Attitude and Overt Ag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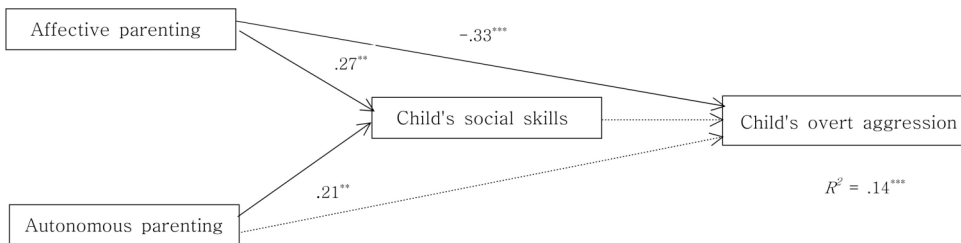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ing model of a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Parenting Attitude and Overt Aggression.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 및 사회적 기술은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을 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Figure 2에 따르면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β = -.33, p < .001)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인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기술은 어떠한 직, 간접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여아의 사회적 기술을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 및 사회적 기술은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을 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검토하였다.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관련 변인들을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인과효과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한 매개모형을 Figure 3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Table 5와 Figure 3에 따르면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아의 사회적 기술(β = -.25, p < .001)이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7, p < .001; β = .23, p < .01). 남아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기술을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 및 사회적 기술은 남아의 관계적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Child's Relational aggression (N = 479)

| Groups | Dependent variables | Independent variables | β | Causal effect | | | R ² |
|--------|--------------------------|-----------------------|--------|---------------|-----------------|--------------|----------------|
| | |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Boys | Child's social skills | Affective parenting | .37*** | .37 | - | .37 | .29*** |
| | | Autonomous parenting | .23** | .23 | - | .23 | |
| | Child's overt aggression | Affective parenting | -.16 | -.16 | -.09 | -.25 | |
| | | Autonomous parenting | .10 | - | -.06 | -.06 | |
| Girls | Child's social skills | Affective parenting | .27** | .27 | - | .27 | .18*** |
| | | Autonomous parenting | .21** | .21 | - | .21 | |
| | Child's overt aggression | Affective parenting | -.25** | -.25 | -.04 | -.29 | |
| | | Autonomous parenting | -.08 | - | -.03 | -.03 | |
| | | Child's social skills | -.16* | -.16 | - | -.16 | |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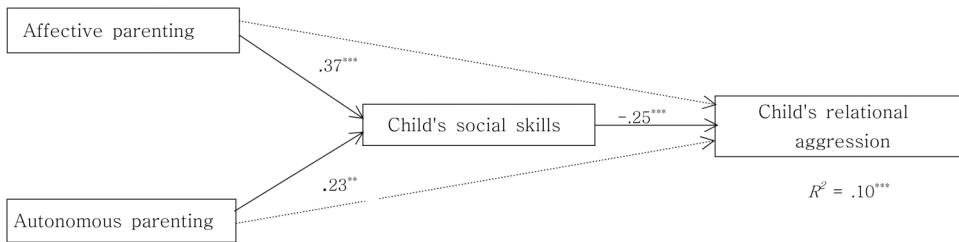


Figure 3. The Mediating model of a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Parenting Attitude and Relational Ag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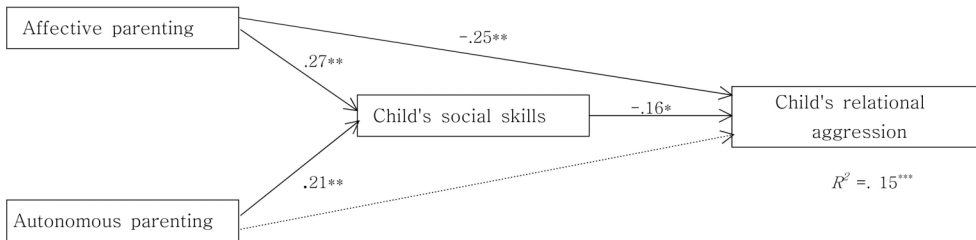


Figure 4. The Mediating model of a Soci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Parenting Attitude and Relational Aggression.

공격성을 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Figure 4에 따르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β = -.25, p < .001)와 여아의 사회적 기술(β = -.16,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β = .27, p < .01)는 여아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β = .21, p < .01)는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여아의 사회적 기술을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 및 사회적 기술은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탐색적 수준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공격성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둘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 되는지를 아동 성별 및 공격성 유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 추출한 479명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 여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였고 사회적 기술도 남아 보다 더 높았다.

공격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Moon와 Oh(2002)의 보고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아에게 더 수용적, 자율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Son(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여아는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과 공감에서 남아보다 더 높다는 보고(Kim, 2006) 및 의사전달하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등 친사회적 기술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Ko(1996) 및 Lee(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는 Crick와 Grotper(1996) 및 Kim과 Park(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여아가 높다는 선행연구(Crick & Grotper, 1996; Shin, 2007)와는 불일치한다. 이는 Bacon와 Nelson(2005, April)의 지적과 같이 측정도구의 문항이 연구마다 다른데 기인한 것일 수 있거나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 공격성의 성별 차이를 메타 분석한 Archer(2004)의 결과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향은 14세부터 17세 사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고는 이러한 추론을 허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를 대상으로 한 공격성 예방 및 증재 프로그램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즉 외현적 공격성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애정적 양육 및 자율적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매개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공격성 유형 및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남아의 경우 부모의 자율적 양육은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은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하여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나머지 변인들은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되며 (Baker, Heller, & Henker, 2002) 애정적 양육이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Serbin & Karp, 2003) 선행연구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즉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통해 정서적 유

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양육의 영향을 증재하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가 남아에게서만 밝혀진 것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 양육의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설정이 확인된 결과라 하겠다. 즉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외현적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아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남아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과 함께 사회적 기술도 배양해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Cohn(1990) 및 Kim(1996)의 결과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아동의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Greenspan, Barenboim, & Chandler, 1976)를 결합한 보다 정교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남아의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 및 자율적 양육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부모의 자율적 양육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으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이는 남아, 여아 모두에게서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적 기술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Lee와 Oh(1998)의 연구결과를 재확인 하는 결과이다. 특히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아동의 사회적 기술뿐 아니라 부모의 애정적 양육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아에게는 부모의 일관적인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Lee(2007) 및 Seo(2003)의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아가 남아 보다 부모의 애정을 더 필요로 하며 이 필요성이 적절히 채워지지 않으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따돌림, 험담 등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관계적 공격성에 몰입함을 시사한다.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만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아에게 또래 집단의 맥락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남아, 여아 모두 부모가 자율적, 애정적 양육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양육이 중요함을 확인해 준다. Berk(2009)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성숙을 배양한다고 하여 부모의 적절한 양육만으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노력이 지속될 때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원만한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켜

또래 및 학교 적응을 잘 하게 되고 나아가 건강한 인격체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을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며 남아 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고 남아는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 둘째, 남아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할수록, 자신의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낮다. 또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할수록 남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 셋째, 여아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할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낮다. 또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할수록 여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 넷째, 남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 또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할수록 남아의 사회적 기술은 높다. 다섯째, 여아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할수록, 자신의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 또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을 할수록 여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 개인적 요인인 사회적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를 밝힌 점에 있다고 본다. 즉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된 경로모형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적 요인과 아동 개인적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로모형을 분석함에 있어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을 고려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매개되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어떠한 양육이 적절한지, 또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공격성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육실제 및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하여 부모의 성별과 아동의 성별 각각을 고려한 비교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둘째, 자료수집 허락 거부로 인해 연구 표본을 확률적 추출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적 추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가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과적 해석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References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 291-322.

Bacon, C., & Nelson, D. A. (2005, April).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 scale and item-by-item compariso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eorgia.*

- Baker, B. L., Heller, T. L., & Henker, B. (2002). Expressed emotion, parenting stress, and adjustment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 907-915.
- Baron, R. A., & Byrne, D. (1994).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7th ed)*, Newton, MA: Allyn & Bacon.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8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Chang, G-Y. (1998). Relation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i, A-N. (2000).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y on mental patients' interpersonal skills and mentally disordered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school and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1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ick, N. R., &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Eisenberg, N. (2006). Introduction. In W. Damon (Editor-in chief)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1-23). New York: Wiley.
- Finnegan, R. A. (1995, Marc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Links with the

- mother-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Greenspan, S., Barenboim, C., & Chandler, M. J. (1976). Empathy and pseudo-empathy: The affective judgments of first-and thira-grad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1), 77-88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GS: Product Number 3401.
- Jang, H-I. (2003). The Effects of a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on Reducing Children's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and Improving Children's Frenaship Q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Jang, J-S.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and the children's types of the propensity to attack.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do, Korea.
- Jang, S-J. (2007). Relationships of Mother'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dr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K-H. (2004).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jected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H., & Park, K-J. (2006). Children's Aggression :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149-168.
- Kim, J-S. (1996). Maternal Traditional-modern Value,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Y., & Kim, K-Y. (2005).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Causal Effects of Rejection, Victimization, and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Pe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145-165.
- Kim, M-J., & Doh, H-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M-Y. (2006). A Study of the effects on children's social skills from their breed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Kyonggido, Korea.
- Ko, S-W. (199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 Lee, C-N. (2001).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Lee, J-S. (2007). A Study on the Female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and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H., & Oh, K-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of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Seoul, Korea.
- Lee, K-J. (2004). A Study on the Mother-Child Interaction in relation to their Children's Social Skill and Self 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Lim, S-H. (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 1265-1277.
- McFall, F. (1982).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4*, 1-33.
- Moon, K-J., & Oh, K-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13.
- Oh, C-M., & Kong, I-S.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39-149.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16*, 644-660.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ark, B-K., & Doh, H-S. (2002).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and Mari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51-64.
- Park, J-J. (2002). Effects of social skill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O. (2005). The Effect of Mother's Object Relations and Rearing Attitudes on Children'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Y. (2002).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35-41.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1*. NJ: LEA, pp. 255-284.
- Seo, J-Y. (2003).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s in relation to Daughter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S-C., & Kwon, S-M. (2002).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Serbin, L., & Karp, J. (2003). Intergenerational studies of parenting and the transfer of risk from parent to child.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12*, 138-142.
- Shin, Y-L. (2007). Self & Peer-Perceived Social Acceptance of Aggression Children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1), 77-85.
- Son, J-Y., & Kim, H-C. (2004). The Effects of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331-358.
- Son, K-H.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Yang, Y-R., & Oh, K-J. (2005). Development of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for 4th-9th grad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961-971.

접 수 일 : 2011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7일